



절망 속 희망의 선율

조진주 공연 17일 광주 금호아트홀

18일 여수 예술마루

떠오르는 신에 바이올리니스트 조진주가 첫번째 전국 투어 리사이틀을 갖는다. 1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18일 오후 7시30분 여수 예술마루 소극장.

이번 연주회에서는 폴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B.119', 아나톨의 '바이올린 소나타 JW VII', 프로코피에프의 '바이올린 소나타 1번 F단조'를 들려준다. 또 프랑스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대표곡도 선사한다.

연주회 주제 '보이스(Voice)'는 아티스트가 시대를 향해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번 연주곡들은 '전쟁'을 테마로 한 곡들이다.

예원학교를 거쳐 커티스 음대에서 잠시 수학한 그녀는 현재 클리블랜드 음대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미국 5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와 데뷔 무대를 가진 그녀는 17세의 나이로 2006년 몬트리올 국제 음악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이후 부에노스 아이레스 국제콩쿠르 1위, 윤이상 국제 콩쿠르 2위를 차지했다.

피아노 연주는 김현수가 맡는다. 벨라웨이 주립대, 클리블랜드 음대에서 수학했으며 미국내 콩쿠르 및 오디션 마스터클래스 반주자로 활동 중이다. 티켓 가격 전석 3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클래식 악기 배우세요

광주여성필, 광산 악기 배움터 운영

'2014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광산 악기 배움터를 운영한다.

광산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바이올린(10명 내외), 첼로(6명 내외), 플루트(6명 내외) 부문으로 나눠 열린다.

교육 기간은 오는 5월17일~10월18일까지 총 20회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6시까지 광주 광산문화회관에서 레슨이 진행된다. 강의 내용은 광주여성필 단원 강사의 무료 레슨 지도, 음악이론 교육 및 합주, 유관단체 공연관람 지원 등이며 수강료는 무료다.

오는 21일부터 5월2일까지 온라인(cello5115@hanmail.net) 접수를 받는다.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광산해피콘서트 시리즈'와 지역민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광산 실내악단'을 운영하고 있다. 문의 010-3625-5115, 062-960-82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섬진강 도깨비 마을 18일 개관

동심 '뚝딱' 터지는 도깨비 마을로 오세요

레일바이크 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곡성 침곡역을 지나 조금더 달리다 보면 섬진강 너머 언덕에 서있는 11m 높이의 '도깨비 천왕' 조각상이 눈에 들어온다. 여기에서 숲길을 따라 올라가면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도깨비들을 만날 수 있다. 일명 '도깨비 길'이다.

설화나 동화 속에 나올 법한 도깨비 조각상들은 시원한 나무그늘 아래서 익살스런 표정으로 방문객을 맞는다. 미소를 건네는 도깨비도 있고, 돈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도깨비도 있다. 10여 분 동안 펼쳐지는 소나무숲을 따라 사뭇 다른 모습의 도깨비들과 눈을 마주치노라면 자연스레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주문을 외우던 동화가 떠오른다.

도깨비 길 끄트머리에는 도깨비 공원이 있다. 길가에서 보았던 조각상들과 또 다른 모양의 도깨비 조각들이 곳곳을 지키고 서 있다. "300여 마리쯤 된다"라는 것이 도깨비만큼이나 개성 있는 이곳 주인공의 말이다.

공원 한쪽에 지어진 건물에는 도깨비 등을 주제로 하는 인형극을 만날 수 있는 공연장, 도깨비와 관련된 사료 등이 전시돼 있는 전시관이 있고, 옆으로는 체험학습장 등이 위치해 있다.

섬진강 도깨비 마을이 오는 18일 정식개관한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인 동화작가이자 세무사, 조각가, 동요작곡가, 요들송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도깨비 마을 김성범(52) 총장은 "우여곡절 끝에 개관하게 됐다"며 "앞으로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10여 년 전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우리 것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섬진강변에 찾아들었다. 지난 2001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동화부문 당선자인, 도깨비에게 말을 거는 내용의 '말걸기'로 도깨비에 관심을 갖게 된 그는 지금껏 도깨비 전도사로, 또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우연히 그가 찾은 곡성 고달면 호곡리 앞 섬진강변에도 도깨비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도깨비살' 전설은 하룻밤 사이 도



도깨비 마을 김성범 총장

도깨비 길·공연장·전시장·체험학습장 갖춰

김성범 총장 10년간 도깨비상 300개 제작

18~20일 요들클럽 공연 등 개관행사 풍성

깨비가 섬진강에 '어살'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김 총장은 "지금도 섬진강 전망대에 올라가면 구불렁 흐르는 아름다운 섬진강과 함께 도깨비살이 한눈에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는 도깨비가 우리나라 최고의 콘텐츠 중 하나임에도 제대로 된 연구나 스토리텔링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다. 도깨비 마을에 있는 11m 높이의 큰봉부터 손톱만큼 작은 녀석까지 도깨비들은 모두 김 총장이 직접 만들었다. 물론 마을 전체가 그의 손을 통해 만들어졌다.

준비에만 10년이 걸린 이곳에서 김 총장은 앞으로 상설로 열리는 인형극, 그림책 읽기 행사, 작가와의 만남 등을 통해 방문객을 맞을 계획이다.

그는 동료 9명과 함께 18개월 전부터 도깨비 마을을 예비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건물 2층 전시관에는 우리 전통 도깨비들과 관련된 사료들이 역사관의 형태로 전시되고 있다. 잃어버린 우리 전통 속 도깨비의 원형을 찾기 위해 김 총장이 모은 자료들이다. 또 체험학습장에서는 도깨비 만들기 및 탁본 찍기, 도깨비떡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도깨비 마을 개관을 맞아 행사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개관행사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열린다. 18일에는 개관선언을 시작으로 인형극, 노래하는 동화작가, 그림책 읽기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19일은 인형극, 노래개비아이드, 대학생동아리 '뚝뚝' 등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며, 마지막날인 20일은 광주 엔시안 요들클럽, 섬진강 아름다운 사람들의 무대로 마련됐다. 중간에 산에서 듣는 요들 공연도 준비돼 있다.

김 총장은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동요도 부르고, 도깨비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061-392-2954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여성 리더 위한 클래식의 위로

16일 무등파크호텔서 마르치아 등 BPW 제주대회 성공기원 연주

이탈리아 출신 기타리스트 크리스티안 마르치아와 광주 출신 부부 첼리스트 김하선·최영철 부부가 연주회를 갖는다. 16일 오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로비.

이번 연주회는 오는 5월 23~23일 열리는 2014 BPW 제주 세계대회 성공 기원과 차세대 여성 리더 육성 기금 마련을 위해 BPW 세계연맹과 한국연맹이 주관하고 한국연맹 무등클럽(회장 범영숙)이 주최했다. BPW(전문직 여성 연맹·Federation of Business & Professional Woman)는 여성 권익보호와 지휘 향상을 위해 조직된 NGO 단체로 세계 110개국 여성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5개 클럽 2000여명이 활동 중이다.

현재 파리 음악원에 재직중인 크리스티안 마르치아는 Ecole Normale Musique A.cortot of Paris에서 수학했으며 파리 바스티유오페라 단원을 비롯 세계 유명 음악인들과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레신 국립음대를 졸업한 최씨는 한국첼로학회장, (사)카메라타 서울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김씨 역시 그레신 음대에서 수학했으며 코리아심포니 단원을 거쳐 현재 기독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빌라 엘라의 '3개의 전주곡'과 '2개의 연습곡', 피아졸라의 '스페인 무곡', '카페 1930', '리베르탱고, 캄머의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듀엣 1번 작품 번호 22', 마누엘 드 파야의 '첼로와 기타를 위한 허무한 인생'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



마르치아

최영철

김하선

광주 5회 연속 1등맛집 선정
2006년(1기), 2008년(2기), 2010년(3기), 2012년(4기), 2014년(5기)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세미나, 가족모임, 비즈니스 미팅에는 역시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율동로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 1등맛집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맞춤형 출장 도시락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카페 보네르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킨 광주 대표 맛집